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44차	일자	2021.10.25 18:30	장소	온라인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10/13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약학대학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인문대학	내일부터 선거 일정 진행. 새내기 예산 활용 같은 경우 가용하는 예산이 2천만원이 넘어서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공개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용방식 변경을 위해 논의 중에 있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금주 중에 20, 21학번 대상 새터 지원금 사용 요청 공문 올릴 예정.
동아리연합회	

##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3분기 간담회(10/29) 준비 중 2021 중앙대학교 학생자치 자료집- 학생자치포럼 관련 준비 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스터디 중앙대 파이터) 진행 완료 일상복지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진행 중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졸준위 추가 졸업앨범 촬영 진행 예정

총: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네 사회과학대학 질의 있다. 적어주신 보고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번 회의에서도 한차례 여쭙았던 것인데 회계사무국 관련해서 월별 회계록 증빙서 어떻게 논의 되었는지 궁금하다.

총: 제가 기억하기로 다음 국, 위원장 회의때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기간이 끝난 이번주 수요일에 논의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기로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한다.  
사과.부: 죄송하다. 한차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착각해서 다음주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네. 논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3    논의안건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 전환 (선거일정공고 이후)

- 선거일정 (붙임자료 아래. 20211025-1)
  - 초안 검토 및 논의
- 투표 대행업체 선정
  - 상황 보고: 오투웹스, K-VOTING 비롯 투표대행업체 회신 완료
  - 제안서 검토 및 논의
  - 평가표 검토 및 논의
- 추천인 명부 수합 대행업체 선정
  - 상황보고: 63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업체인 '글로싸인' 견적서 검토 (63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1만 건 계약)
  - 견적서 검토 및 논의
- 투표용지 내 '투표 안함' 항목 포함 관련
  - 포함 여부 논의
- 6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 독려용 경품 추천 시행 관련
  - 시행 여부 논의
- 기본 유권자 범위 설정
  - 교환학생(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경우), 산학협력인턴, 외국인 유학생, 실습생 등등

총: 선거일정 공고 이후부터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세부 안건이다. 선거 일정 관련한 안건인데 지난주 월요일 중운위분들께 초안을 공유해 드린 바가 있고 별다른 피드백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한다. 초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피드백이 있으신 대표자 분은 피드백 주시기 바란다. 네 피드백 없으신걸로 하고 의결안건 1번으로 넘어가서 선거일정 확정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논의안건 1번의 세부안건 두번째이다. 투표 대행업체 선정인데 오투웹스와 K-VOTING으로부터 자료를 요청을 했고 자료는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 공유해드린 바가 있다. 제안서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약 5분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작년과 제작년과 더불어서 중앙대학교 선거는 오투웹스 라는 업체를 통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 K-VOTING은 제가 알아보니까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과 연관이 조금 되어있다 라고 한다. 그거 감안해서 제안서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업체도 알아 봤는데 저희 총학생회 선거의 규모를 담당할 투표 대행업체는 이 두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선 두군데 업체로부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전달 받은 바 있다.

인문.정: 혹시 총학생회장님 밑에 평가표는 원래 다 이렇게 공란인건지?

총: 이거는 이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오투웹스와 K-VOTING 전자투표 업체 비교 및 평가서 자료가 있다. 그냥 단순히 이 두 업체를 가지고 의결을 해도 되지만 혹여나 투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 라는 판단하에 평가표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평가 항목은 작년 62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한 평가표이다. 제안서 검토가 끝나면 이 평가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각 단위별로 평가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각 단위별로 하나의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평균값을 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오나 만약에 소수점 자리가 나올 경우에 올림으로 처리할 것인지 내림으로 처리할 것인지 반올림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안서 검토가 마무리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안서는 공지방에 올려드린 바가 있다. 공지방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검토가 다 되셨는지? 네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안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혹시 제안서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의견이 없으신지? 네.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안건지 5페이지에 있는 평가표를 봐주시면 되겠다.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별건 아니고 평가표에 심미성 항목이 있는 것이 살짝 의아하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 심미성 말고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평가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 드린다.

총: 그 기능성은 밑에 나와 있는 안정성과 편의성과 다른 맥락에서 넣자는 말씀이신지?

사과.부: 네 제가 생각하는 기능성은 저희가 투표를 진행할 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예를 들어 유권자에 대한 방식이 달라한다면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성 항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총: 제가 심미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개표를 할 때나 집계할 때 좀 가독성이 좋게 꾸밀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 평가 요소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해주신 대로 그 기능성의 항목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 그러면 중운위분들께 이 심미성을 기능성으로 바꾸자 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시기 바란다. 심미성 평가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자 아니면 기능성으로 바꾸자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과.부: 총학생회장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심미성 부분이 자료 정리, 그래프 부분에 대한 가독성이라면 그냥 그렇게 제가 인지하고 점수 평가를 할 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저는 심미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어서 기능성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렸는데 그냥 네 심미성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총: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는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너무 평가 항목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사과대 부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미성이랑 기타 항목이 사실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뭔가 평가할 때 되게 분산될 것 같아서 나머지 안정성, 편의성, 경제성에 거의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린다.

총: 작년 자료를 보면 이 기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우선 오투웹스의 기타 항목에 비교란에 '본교를 포함하여 여러 대학교 여러 단위에 대해 진행 실적이 있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교 업체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확인했다.' 라는 명목으로 기타 항목에 점수를 준 것으로 62대가 이렇게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 K-VOTING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 집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점수에 좀 저조한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 기타라면...

예술.정: 네 알겠다.

총: 평가 항목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은지? 네 그러면 평가항목은 전대에서 사용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각 단위별로 평가표 하나씩을 드릴 텐데 평균값을 낼 때 소수점 자리가 나올 경우에 이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판단 이제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내림으로 처리할지 올림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반올림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평가를 수치화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과대학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냥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 평범한 것 같아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총: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둘째 자리까지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평가표 자료를 중운위 공지방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 시간을 딱 정해놓고 평가표를 수합을 할지? 아니면 주문의 회의할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릴지? 일단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는게 어떤지? 저도 평균값을 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 3분 정도 드리면 될지? 좀 짚나...

통공.정: 3분 괜찮다.

인문.정: 근데 혹시 비교에 의견은 안 써도 괜찮은지?

총: 의견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왜 기타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는지 본인이 판단해서 추가 의견을 남겨주셔도 된다. 그게 나중에 저희가 투표 대행업체를 선정했을 때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 53분이기 때문에 56분까지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고 대화방에 대표자분 한 명이 올려주시기 바란다. 대화방에 파일을 올려주실 때에는 제가 공지방에 올려드린 그 파일명 양식대로 파일명을 수정하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제한 시간 3분이 지났는데 나머지 대표자분들도 대화방에 올려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시간 좀만 더 주실 수 있는지?

총: 네 19시까지 주시기 바란다. 공대만 올려주시면 된다.

통공.정: 올렸다.

총: 네 중운위 회의 끝나고 평균값 산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세부 논의 안건이다. 추천인 명부 수합 대행업체 선정인데 63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사용했던 글로싸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았고 견적서는 공지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린 바가 있다. 우선 작년에 1만 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이 난 후에 보니까 반쯤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천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추천인이 많아진다면 추가 결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된다. 우선 이 글로싸인의 업체로 선정을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견적서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3분 드리겠다. 네 5천건으로 결제를 하면 단가 360원으로 180만원의 금액이 지출이 되고 천 건으로 만 건으로 결제를 한다면 360만원 1만 5천건으로 결제를 한다면 450만원의 금액이 지출될 예정이다. 사실 5천 권을 계약하든지 1만 권을 계약하든지 단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천건을 먼저 결제를 하고 5천건이 넘어간다면 추가건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견적서 및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가 끝이 나셨다면 견적서나 이 매뉴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혹시 글로싸인에서 개인 인증을 받아야 될 때 휴대폰 번호가 아닌 이메일 방식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총: 그 관련 내용이 혹시 매뉴얼이 없었는지?

사과.부: 제가 확인하기로는 전화번호 인증 밖에 못 봐서 혹시 네.

총: 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

사과.부: 네 알겠다.

통공.정: 저 근데 지금 뭐 보고 계신 건지?

총: 올려드린 견적서 하고 그 매뉴얼 링크 올려드렸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매뉴얼이 있다.

통공.정: 네 링크를 못봐서... 감사하다.

총: 네 검토시간 2분 더 드리겠다. 네. 검토가 다 되었는지?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혹시 이클래스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봤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글로싸인을 통해서 추천인을 받을지 아니면 이클래스를 통해서 추천인을 받을지에 대한 논의는 제가 이클래스 사용 문의에 대한

회신이 오고 난 후에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작년 선관위 피드백을 보니까 글로싸인이 편하긴 한데 본인 인증 부분에서 좀 다소 단점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셨고 이클래스의 경우에는 큰 단점이 없었으나 이클래스로 추천을 진행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글로싸인이라는 외주를 맡겨가지고 추천인의 추천서를 수합을 할지 아니면 이클래스 과목 개설을 통해서 추천인을 수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제가 문의드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지?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도 동의한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도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동의한다.

총: 네 그러면 네 번째 세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투표 용지내 '투표 안함' 항목을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데 우선 전자투표를 진행을 했을 때 투표 안함에 항목을 넣은 적은 2019년 62대 총학생회 선거다. 그때 투표 안함을 넣었고 다른 연도에서는 투표 안함을 제외했다 라고 하셨다. 우선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좀 먼저 드리자면 투표 항목 내에 투표 안함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이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투표 안함을 넣는 것은 선관위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우선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는 우리 중앙대학교 학우분들 선거권을 직접 행사하는 유권자분들이 선거권과 참전권을 정상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인데 투표 안함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선택적으로 참정권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웃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투표 항목 내에 투표 안함이라는 그런 항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기권이 따로 있지 않은지?

총: 네 찬성 반대 기권이 있는데 투표 안함 또한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저번 주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그 후보를 반대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반대 또는 기권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투표 안함까지 항목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투표의 경우에도 선택권으로 투표권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변함을 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은 투표용지 사회과학대학은 투표 용지 투표 안함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선거 시행규칙 상위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며 선거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투표 안함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학우들에게 투표를 강제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학우들이 투표를 할지, 말지는 학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투표 안함 항목이 없을 경우 학우들이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표 안함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우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할 권리와 투표해야 되는 그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는 학우분들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학우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정도만 해야 되지 이렇게 투표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선관위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학대학은 투표 용지내 투표 안함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총: 네 우선 투표 안함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여건의 보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투표 안함을 통해서 '이 후보한테 투표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투표 안함 자체에 넣는 것에 찬성을 하는 입장 쪽에 그 근거가 근거 중 가장 큰 근거가 투표율 50%가 넘으면 당연히 당선되기 때문에 나는 투표율 넘기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난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렇게 근거를 많이 말씀을 하신다. 근데 저도 선거를 겪어봤고 여러분들도 선거를 겪어 보셨다시피 투표율이 50% 넘는다고 해서 당선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제 조건으로 전제 근거로 사용이

된다는게 저는 좀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관위로서는 투표 안 하면 좀 제외해서 투표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입장과 그런 견지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사과.부: 네. 다시 저희 사회과학대학의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투표 안함 항목이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 투표 저희가 사실 선관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독려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이지 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투표 안함 항목이 있는 것은 선관위로서 '너는 유권자이지만 투표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반대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데 투표 안함 항목이 없음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투표를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비민주적 절차가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투표 안함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드러도 되는지?

총: 제가 한마디만 더 드러도 될까요 회장님?

간호.정: 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성 투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투표의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참정권을 주는 경우는 없었고 학우분들이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로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두 번째로 투표율을 넘기는 것에 반대하거나 두 가지 이유가 큰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로 이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반대 또는 기권의 그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투표를 남기기 싫어서 투표 안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웃기는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50% 넘겼으면 애들이 당선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 투표율이 50%를 넘었다고 해서 당선이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투표 안함을 제외하자 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었다. 네 간호대 학생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정: 네 기권의 경우에는 선거에 참석을 한 후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투표 안함 이라는 조항 자체는 선거에 대해서 불참하는 것인데 불참은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의무나 약속에 불이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의 기권의 기본 조건이 참석인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걸 권리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유권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마련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원활한 선거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투표 안함의 조항을 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기권의 정의가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의 투표 안함을 넣는 것은 똑같은 의미의 항목이 두 가지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이게 사실 그냥 다 따로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난 총학 투표는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단과대 투표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총학 투표율은 채워주기 싫은데 단과대는 하고 싶다 이러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다. 투표 안함이 없으면.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랑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일단 제 의견은 총학생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유랑 비슷한 맥락이고 그렇게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만약 그게 걱정이 되시는 단위가 있다면 그냥 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총: 네 따로 진행을 하셔도 된다. 근데 그렇다면 온라인 업체는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중앙선관위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단이다. 단과대학 선거관리 차원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중선관위원장으로 좀 중운위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정말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 회칙에서 선거권을 회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를 안하는 것 자체가 권리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권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투표 안함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우분들이 사실 권리를 행사할 때 그에 따른 의무를 행사할 때 권리가

오는 것도 맞고 반대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 또한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있어서 투표 안함이 하나의 선택지를 더 부과하는 거 것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 안함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총: 다른분들 의견 있으신지?

예술.정: 근데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투표를 만약에 안하고 싶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굳이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의견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그냥 안할 사람은 투표 자체에 참여를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거기에 기입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공.정: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엮어서 하다 보니까 총학, 단대, 과 선거를 한 번에 치뤄가지고 중간에 끌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과 투표만 하고 싶어도 이제 총학이랑 반대 투표를 이제 해야만 과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총: 저도 이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 투표 안함 항목을 넣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나 라고 해서 작년에도 간단하게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나왔던 답변이 투표 안함 항목을 투표 항목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선거권이라는 유권 해석이 왜 달라지는지도 사실 근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선거권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학우분들끼리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무조건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투표 안함을 넣어가지고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사과.부: 네. 앞서서 총학생회장님이랑 통일공대 학생회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단위에서도 생각을 저희 단위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표 독려 차원에서 저희 사회과학대학이 투표할 수 있는 링크가 여러 개인 것보다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같이 해서 하나의 링크일 경우 학우들의 접근성도 높고 편의성도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학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표 링크가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공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회장단 선거 단과대 선거 그리고 학과/부 선거를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이 제각기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선거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를 투표하고싶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선거를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투표 안함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 드렸던 것이다.

총: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투표를 안 하고 싶은 이유가 투표를 올리기를 싫어서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표율 50%가 곧 당선이란 그런 무조건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경로를 하는 차원에서 투표 안하면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계시는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6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 독려용 경품 추천 시행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들고 왔냐 라고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게 사실 이 경품을 거는게 금권 선거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후보자가 등록이 되기 전에 그리고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는 것은 금권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거 일정 공고를 올리기 전에 우리 중운위분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의결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우선 경품이 어떻게 될지는 경품을 구매해 주시는 본부의 주무 부서와 논의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독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품 추천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다. 이 선거 투표 독려용 경품 추천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작년에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 경품 추천만큼 확실한 캠페인이 없어가지고 경품 추천을 하기로 결정이 된것으로 예 기억을 한다. 사실 다른 캠페인을 해서 좀 투표를 독려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문화적으로나 이런 학우분들을 위해서라면 경품을 걸어서 좀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공고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텐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의결을 진행을 해서 캠페인을 확정 지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금권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

간호.정: 우선 상품을 증정을 함으로써 투표를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중운위 때도 똑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 때도 분명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총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려하는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상품을 증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지양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단위 대표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 일단 이런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총: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언젠가는 이런 경품 추천을 통한 투표 독려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어쨌든 2년 연속으로 비대면 학사가 진행이 되었고, 많은 학우분들이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경품 추천만큼 확실한 투표 독려 캠페인은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대면 학사로 전환이 된 뒤 투표 독려 캠페인의 방식을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경품 추천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한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은 여전히 투표 독려를 위한 경품 추천 방법이 금권 선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저희는 총학생회장님 의견과 반대로, 비대면 시국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학우들이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아니라 각 개인의 전자기기 등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올라갔다고 생각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굳이 이번 선거에서도 금권 선거를 시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거 투표 독려용 경품 추첨을 하는 것이 저희 단위에서는 개인적으로 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얘기해도 괜찮을지. 인문대학의 의견은, 경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소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앞서 간호대 회장님이나 사과대 부회장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사실 이 경품 선거가 이루어진지는 꽤 되었는데 이게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 경품 선거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매우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진행할 때 유권자분들이 후보자나 선거의 진행 양상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자칫 상품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우려가 된다. 이는 엄연한 역전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인문대학의 의견은 이렇다.

예술.정: 예술대 또한 방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표자분들이랑 의견 같고, 만약 경품 이런 걸 하려면 선거랑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추천해서 주는 거 말고 그전에 좀 더 간접적으로 선거를 열심히 참여하자 이런 식의 인증을 한 사람이라든지 사전에 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한테 경품을 주는 것은 예술대도 반대한다.

총: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품 추천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나,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캠페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금권 선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 사견으로는 아직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권 선거라고 칭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등록이 되었는데 이 후보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경품을 건다고 한다면 이것은 확실한 금권 선거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품을 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단순히 투표율을 50%를 넘기기 위해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 대표자로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많은 투표율 내에서 많은 찬성을 받아야 그 후보와 회장단이 대표성과 정당성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경품 추천을 진행을 해서 투표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선관위가 다음 대표자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총: 저는 경품 추천보다 더 확실한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겠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많은 선관위원들이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품 추천만 한 캠페인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경품 추천을 진행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말씀해 주신 중선관위가 왜 다음 대 총학생회의 대표성과 정당성까지 고려를 해야 하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직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저희도 다년간 학생회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이 학생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게 중선관위의 역할과 책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경경.정: 진행 관련해서 지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저희의 역할은 참여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지금 현재로서는 독려하는 여러 방법 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법이 해당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공고가 올라가기 전에 결정해야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하나, 채택 후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경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이다.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 전적으로 앞선 간호대, 인문대에서 해주신 말들 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저도 원래 제가 군휴학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경품 뿌리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면일 때는 후보자들 선거운동본부든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투표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 운동을 하면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이 비대면 시점에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던, 어떤 방법으로 활발한 선거 운동을 하던, 사실 공지방에 글을 올려도 안 읽는 학우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약을 들고 나와도 그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대면 학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게 공대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반대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총: 더불어서 선거 독려 캠페인으로 이것만 진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품 추천과 동시에 또 다른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을 하면 투표율 확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절충안으로, 아까 예술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투표 독려형 경품 추천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선거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뭔가 어느 정도 경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투표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표 참여에 대한 경품 추천을 진행하게 될 경우 선거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충안도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린다.

총: 저는 사실 아직까지 경품 추천을 통한 투표율 확보가 왜 투표의 본질이 흐르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후보에 찬성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경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기권을 했던, 내가 어떤 투표권을 행사했던지 간에 그거와 무관하게 다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투표를 하는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기 때문에 투표 자체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예술.정: 근데 단순히 그냥 나 상품 받기 위해 투표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생겨나고 그런 문화가 싫으실 수 있어서 이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더 나은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총: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또한 경품 추천을 진행을 할 때,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그 캠페인의 효과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대에 인수인계를 통해 보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간호.정: 저도 총학생회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병행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 주가 상품이 아니라 아까 예대 회장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신 것처럼, 사전 캠페인을 통해서 그게 주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통공.정: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 사전 캠페인을 또 어떤 걸 할지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게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 캠페인을 인증 하려면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모든 학우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질지도 의문이 든다.

총: 캠페인의 참가권이 한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통공.정: 지금 머리에 든 생각은 그렇다.

총: 우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전 선거 캠페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해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선관위에 계실 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이, 다른 분들이 좋은 의견도 다

해 주셨지만 저 또한 경품 추천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하는 문화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기타 제반 그 사항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품 추천이 필요하다. 다만 경품 추천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카드뉴스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에 대한 퀴즈를 풀어가지고 그 퀴즈를 일정 부분 맞히는 분들에게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선거 투표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천도 진행을 하고 다른 그 이외의 방법도 함께 동원을 해서 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

총: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을 해놔야지 금권 선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지?

간호.정: 오늘 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 아닌지?

총: 네 그런 의미에서 여쭙았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을 하되, 선거 투표 캠페인으로 경품을 주는 것. 이 외의 캠페인도 함께 고민을 해서 함께 병행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기본 유권자 범위 설정이다. 이거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회의 때 확정을 짓도록 하겠다. 우선 기본 유권자가 있고 추가 유권자가 있는데 기본 유권자는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학우분 들일 수 있고 추가 유권자는 내가 투표를 했을 때 그 투표의 분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신 분들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투표와 좀 동떨어지고 투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못받으시기 때문에 기본 유권자가 아니라 추가유권자로 해서 투표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분모를 포함을 하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학 협력 인턴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기업에 나가서 인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정보를 이제 투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에 환경상 네 말이 안 나온다. 여튼 같은 맥락이고 외국인 유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들 해외에 계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 선거에 참여하시기 부족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투표에 응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투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유권자로 포함 시키자 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실습생도 간대나 의대나 약대나 다른 실습생분들도 그런 환경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 유권자로 설정을 할 것인지 추가 유권자로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결이 진행된 바가 있다. 우선 해외 교환학생분들을 추가 유권자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결이 가결이 된 바가 있고, 산학협력인턴자들이 추가 유권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결이 가결이 된 바가 있고 유학생 분들도 앞서 두가지 의결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가 유권자로 간주를 해야 한다는 의결이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교환 학생, 산업협력인턴, 외국인 유학생 모두 기본 유권자가 아니라 추가 유권자로 간주해서 63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이 된 바가 있다. 이렇게 사전 배경 설명을 드린다. 유권자 범위 설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의견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교환학생이랑 산업협력인턴이랑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학적부에는 재학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총: 아마 그럴 것이다. 재학생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인문.정: 학적부에 재학생으로 되어 있으면 회칙상 기본 유권자로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왜 굳이 따로 추가 유권자로 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더더욱 온라인 투표 비대면 선거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다.

총: 우선 이 선거를 진행할 때 다른 시스템 상의 한계로 인해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창구가 부족하고 정보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을 했었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그러하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기본 유권자로 포함을 해버리면 유권자의 분모가 너무 많아지고 투표율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신 분들을 유권자로 포함을 시키는 추가 유권자로 간주하자고 하여 다 이렇게 추가 유권자로 적용을 시킨 전례가 있다. 더군다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추가 유권자를 해야 한다는 작년 중운위의 판단이 있었다.

간호.정: 아까 실습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습생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작년에 그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습생이 제외가 되었다. 실습생분들을 기본 유권자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이 추가 유권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최초 논의에서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기에 그런 이유에서 가지고 왔다. 실습생은 당연히 기본 유권자로 간주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

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은 앞선 인문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학우분들께서 재학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냥 기본 유권자로 간주하여서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비대면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유권자분들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관련된 정보를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유권자로 상정하여도 정보적인 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 특히 배경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유학생분들이랑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기타 SNS 계정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텐데 그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근데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하시는 전화번호가 국내 전화번호와 다르기 때문에 해외 발송이 안 될 수고 있고 또 SNS를 지금 총학생회나 각 단과대학을 팔로우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학우 분들도 현저히 적다고 판단을 했다. 다른 추천 인명부나 다른 투표 링크를 보낼 때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 유권자로 적용하여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은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해하였으나 사실 유학생분들이 그런 창구에 있어서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포탈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오투웹스의 경우에는 포탈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방식 또는 포탈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면 외국에 계신 학우분들께도 쉽게 투표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선거 기간에 대한 공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전화번호를 통한 문자나 메일 등은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다같이 이클래스를 통해 수강하고 계시는 학우분들이기도 하고 포탈은 중앙대학교 학우분들이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분들께서는 투표에 관련된 정보나 선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총: 이와 관련해서 제가 롤미팅 자료는 안 전달해드렸지만 모든 홍보물을 이클래스를 통해서 공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홍보물을 이클래스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홍보물에 한해서만 이클래스를 통해서 공유해드렸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온전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기본 유권자로 포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으나 보다. 근데 또 저희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논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지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의결을 진행할 것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되겠다.

인문.정: 인문 대학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맥락일 텐데 어차피 오늘 의결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위별로 단운위에서 이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인문대학이 가지는 의문점은 회칙 상으로 기본 유권자인데 관위가 이를 추가 유권자로 함부로 분리시키는 것이 과연 선관위에 주어질 권한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인문대학의 의견이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

총: 그래서 저도 특히 유학생 관련해서는 중국인 유학생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연락을 좀 하려고 했으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분들이 과연 정말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선거권, 투표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재 외국으로 교환 학생 가신 분들의 수와 산업협력인턴에 종사하고 계시는 학우 분들의 수와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지금 학칙팀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좀 동떨어진 상태인지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차기 중선관위 회의 때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논의 안건은 이것으로 끝이고 의결 안건이 하나 남아있다.

#### 4 의결안건

## 1. 선거일정 확정

- 안건명: '64대 총학생회 선거 선거일정은 붙임자료 1의 안으로 확정한다.'

총: 안건명은 채팅창에 올려드리겠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 10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 선거일정 공고는 가결이 됨에 따라 내일 중으로 공고하도록 하겠다.

## 2. 투표 대행업체 선정

- 붙임자료 평가표 참고

## 3. 추천인 명부 수합 대행업체 선정

- 안건명: '64대 총학생회 선거 내 추천인 명부 수합 대행업체는 글로싸인으로 선정한다.'

## 4. 투표용지 내 '투표 안함' 항목 포함 관련

- 안건명: '6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용지 내 '투표 안함' 항목을 포함한다.'

총: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은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안건명이다. 6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용지 내에 투표 안함 항목을 포함한다. 포함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찬성이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반대하시는 단위는 반대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단위는 기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참석 단위 10단위 찬성 2단위, 반대 7단위, 기권 1단위로 부결되었음을 알린다. 6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용지 내에는 투표 안함 항목을 제외하고 투표 용지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다.

## 5. 6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 독려용 경품 추천 시행 관련

- 안건명: '64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 독려를 위해 경품 추천 사업을 시행한다.'

총: 의결명은 제가 중운위톡방 아니 채팅창에 올려드리겠다. 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근데 저 네 의결 안건 이거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총: 네

예술.정: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 참여자들에게 경품 추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걸어놔야지 저희가 금권 선거라는...

총: 네 알겠다. 제가 한번 수정하고 올려드리겠다. 예대 회장님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으신지?

예술.정: 저는 좋다.

사과.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혹시 지금 추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총: 캠페인이라고 사업이든 캠페인이든 사실 큰 단어 간의 의미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혹시 말씀을?

사과.부: 추천 사업과 추천 사업에 대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총: 아 추천 추천. 예 이거는 달라질 수 있겠다. 죄송하다.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네 경품 추천 사업을 시행한다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반대하시는 단위는 반대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기권하시는 단위는 기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참석 단위 10단위, 찬성 6단위, 반대 3단위 기권한 1단위로 가결 되었음을 알린다.

## 6. 선본실 협조 요청

- 안건명: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본부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학교 주무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선본실 협조 요청이다.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하면 선본은 중선관위에 선본실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중선관위 차원에서는 선본이 선본실을 요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좀 의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의결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고 안건명은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본부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에 학교 주무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의결 명을

가지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사실 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굳이 의결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만약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면 선거운동본부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라는 그 문장 사이에 선거운동본부에 선본실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안건명 수정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총: 선본의 권리 중에 선본실을 요청할 수 있다가 있는 것이지 중선관위가 줘야 한다 라는 의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고자 의결을 진행하고자 했고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의결명을 가지고 의결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간호.정: 그러니까 이 의결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에 대한 의결을 보고자 상정하신 것인지?

총: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할 수 있다. 네 중선관위가 이 선본실을 줘야 한다 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선관위 차원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자는 목적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과.부: 네 그 목적은 이해했다. 근데 선거운동본부의 협조 요청이 어떤 협조 요청인지 의결명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

총: 그리고 중선관위가 심의한 후 라고 넣은 이유는 지금 몇 팀의 선본이 등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쪽에서도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10개의 선본이 등록이 돼가지고 10개의 모든 선본에게 선본실을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선관위가 심의한 후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의결명으로 좀 포함을 시켜놨다. 그러면 의결을 사과대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변경을 한 후에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그러면 안건명은 채팅창에 올려드렸고 의결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참석단위 10단위, 찬성 10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되었음을 알린다.준비된 논의 안건과 의결 안건 진행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논의 안건과 의결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남겨주시고 의견이 없다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5 기타안건

질의응답 및 추가안건 상정

### 1. 회의 진행 방식 전환

- 대면 회의 진행 vs 현행 유지

총: 내일 중으로 중운위가 중선관위 체제로 전환된다. 중선관위는 선거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기타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대면 회의로 전환해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주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투표를 통해서 진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바로 의견을 굳이 구하는 것보다는 바로 투표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바로 투표하는 게 어떨지 제안드린다.

총: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명은 중선관위 회의 진행은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한다 라고 의결명을 채택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은 채팅창에 남겨드렸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10단위 모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중선관위 회의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회의는 강의실 대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혹여나 총학생회실은 학생회관 내에 다른 동아리방들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회의 전에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이랑 논의를 한 결과 현재 동아리방이 백신 접종 2차 접종 분들이 학생회관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동아리 입장에서 무방하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의실을 총학생회의 회의실로 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중운위 공식방을 통해서 백신 접종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기타 안건인데 지난주에 단과대 학생자치 포럼 대체 행사격인 자료집 수합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이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혹시 추가 안건 상정이나 질의가 있

으신 대표자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추가 안건 상정은 아니고 단운위에서 중운위 통해서 전달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총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학운위 피드백 관련해서인데 연서명 안건의 경우 안건 제목을 연서명 당시 문안 그대로 가져오고 중운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명을 선정했어야 된다는 의견과 총학생회 보고 질의 응답 시간에는 답변자의 시간까지 카운트하였고 또한 발언 규칙 중 3인과 5분 이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둘 중 하나만 해도 해당해도 발언 기회를 제한하여서 질의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표자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에서 발언 제안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는 제안을 두어서 아쉽다는 의견과 속기 업무를 진행하는 집행부의 업무 강도가 업무 강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고려해 봤을 때 전문 속기사를 섭외하여 속기를 진행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확대운영위원회 이전에 총학생회 공식 소통 창구에서 대표자가 대표자의 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연서명으로 상정된 안건은 바로 발의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확대운영위원회 자료집에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담아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 진행했었던 인권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데 학생 대표자 인권 교육에 대한 단운위 내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다. 강사님께서 성폭력이 젠더 문제라는 점을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신 점 그리고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교육을 진행하신 점 그리고 교육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는가 라는 맥락 속에서 남자는 몸으로 대화하고 여자는 마음으로 대화한다 라는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이 대학에서 학생 대표자 인권 교육에서 진행되는 발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셨던 것 같고 교육보다 직장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정도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대표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두 가지 피드백은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바라고 한 피드백이라기보다 다음 주 학생회에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반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맥락 나온 피드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종료가 각 단위에서 지금 줌을 사용하고 있는데 줌 종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가 들어와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학교 측에 받은 줌 종료 사유나 아니면 관련한 답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싶다.

총: 네 줌은 다시 한번 더 여쭙보도록 하고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보고 안건에 질의 답변 인원 수와 시간을 제한한 것은 관례적으로는 보고 안건 때에 회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줌 다른 안건과 같은 회의 규칙을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한을 뒀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국장,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속기사를 어떻게 섭외를 할 것이냐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속기사 섭외 비용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로 감당하기에는 좀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아예 어쨌든 배리어프리가 전담 속기사를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에서 스스로 속기를 치면서 보다 배리어프리한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직접 속기를 쳤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은 저희도 기존에 존재했던 성평등위원회가 진행하려고 했던 인권센터의 성평등 교육이 왜 이유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취소된 바람에 저희도 하루 이틀 전에 강사를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장 최우선으로 둔 것이 이분이 속해 있는 기관의 대표성과 정당성이었다. 그분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속해 있던 분이기에 국가 공인기관에서 근무하신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 근데 그런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때 인수인계를 해서 보다 훌륭한 강의로 대표자분들을 만나 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문이 44차 회의는 폐회하도록 하겠다. 제가 회의가 끝이 나면 아까 평가하셨던 전자투표 업체 평가표에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룰 미팅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 룰미팅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11월 8일에 있을 룰 미팅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다. 네 그러면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사과.부: 총학생회장님 정말 죄송한데 줌 종료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의견 혹시 단위에 전달해도 괜찮은지?

총: 네. 근데 저도 우리 집행부한테서 들은 거라서 확실한 건 아닌데 그에 대한 질문이 아직 회신이 안 와가지고 이게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전달받은 바는 없다.

사과.부: 네 그러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다시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선거일정 공고	2021년 10월 26일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5조(선거일정)에 의거
공직사퇴 마감	10월 29일 (23:00까지)	*중앙선관위와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4조 가항에 의거)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4조 라항에 의거)
후보 추천서 등록 및 수령	10월 31일 ~ 11월 1일 등록 및 수령 가능시간 10:00 ~ 18:00	*후보추천은 2학기 비대면 학사 관계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진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링크를 통한 서명만을 인정한다. *온라인 서명 서식 제작을 위해 별도 후보추천서 등록 기간을 둔다. *후보추천서 등록용 제출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과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의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부)명, 학번, 이름, 약력, 사진 ex)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18 최승혁
후보추천 기간	추천서 링크 수령 이후 ~ 11월 8일 (18:00까지)	*본 회원(재학생)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였으며, 본 회원으로부터 4개 단과대 이상 총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단과대 별도로 각각 50명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분별로 복수 추천이 가능)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1조에 의거)
후보자 등록마감	11월 8일 18:00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구비하여 룰 미팅 30분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각 1부 2) 대표참관인, 선본원 명단과 재학 증명서(선본원은 재적 증명서 가능) 3)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4) 후보자사진(파일 형태 온라인 제출) 5) 선거공탁금 50만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2조에 의거) *입후보하려는 자는 룰미팅 이전에 반드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인권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완본 제6조에 의거) *31조 다항에 의한 후보추천서는 중앙선관위와 관리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 룰미팅	11월 8일 (18:30 ~)	*중앙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선거시행세칙 31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가 32조 가항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3조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11월 10일 ~ 11월 22일 (24:00까지)  [11월 19일: 합동 유세 및 합동 공청회]	*룰 미팅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 준비기간으로 지정한다.(단, 선거운동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선관위가 정한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단,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6조 나항, 29조에 의거) *합동유세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8조에 의거) *합동 공청회는 중앙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9조에 의거)
투표 기간	11월 23일 ~ 11월 24일 (연장투표: 11월 25일)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에서 결정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5조 나항에 의거)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2조 나항에 의거)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장 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8조에 의거)
당선 공고	개표 직후	*개표는 연장투표가 실시될 경우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에 의거)
이의제기 기간	당선공고 시점 ~ 24시간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나항에 의거)
당선확정 공고	당선공고 24시간 후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마항에 의거)



## 전자투표 업체 비교 및 평가서

-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체명	참고 자료	평가항목	점수	비고
	견적서 참고	심미성(20점)		
		안정성(20점)		
		편의성(20점)		
		경제성(20점)		
		기타(20점)		
O2WEBS		총합(100점)		

	견적서 참고	심미성(20점)		
		안정성(20점)		
		편의성(20점)		
		경제성(20점)		
		기타(20점)		
K-Voting		총합 (100점)		

평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 서울캠퍼스 학생처 학생지원팀

업체명	참고 자료	평가항목	점수	비고
	견적서 참고	심미성(20점)		
		안정성(20점)		
		편의성(20점)		
		경제성(20점)		
		기타(20점)		
		총합(100점)		
O2WEBS				

	견적서 참고	심미성(20점)		
		안정성(20점)		
		편의성(20점)		
		경제성(20점)		
		기타(20점)		
		총합 (100점)		
K-Voting				

평가자: (인)